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기독교교육논총 제75집 (2023. 9. 30): 033-058
pISSN 1229-781X / eISSN 2671-5759 https://doi.or.kr/10.17968/jcek.2023..75.002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by Moed, Jewish Mishnah*

Jang-Heum Ok
(Hansh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igins and texts of the Jewish scriptures, the Mishnah Moed, and to examin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theology to suggest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for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content and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contents were set as follows. First, for analyzing the origin and text of Mishnah Moed, the historical process until Mishnah Moed was edited was reviewed, and the contents of the text of Mishnah Moed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of 12 Masekko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er; The first group is the contents Shabbath and Festivals : Shabbat, Pesahim, Yoma, Sukkah, Rosh haShanah, Megillah and the other group is as a rule to keep the festival, Erubin, Sheqalim, Betzah, Taanith, Moed Qatan, Hagigah. Second, in order to analyze the mishnah moed in educational theology, the church calendar for the festivals currently used in Christianity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origin of the church year, the contents of the church year, and the scriptures of the church year. Third, as an educational model for applying Mishnah Moed to Christian education, the goal of seasonal education, the content of seasonal education, and the method of seasonal education were presente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seasonal education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must be conducted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Second, The education is needed for leading a life that correctly understands and practic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Christian festivals. Third, various church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according to the Christian Bible routine. Fourth, numerous symbols symbolizing the Christian festivals must be created and educated. Fifth, except for the festivals of the sufferings of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festivals must be observed as Celebration.

Key Words
Mishnah, Moed, Shabbat, Pesahim, Sukkah, Yoma, Rosh haShanah

Received August 22, 2023 **Revised** September 27, 2023 **Accepted** September 28, 2023
Author : Jang-Heum Ok,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okch1@hanmail.ne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유대교 미쉬나 모에드(Moed)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적용방안*

옥장흠**
(한신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유대교 경전 미쉬나 모에드(Moed)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기독교교육에 실제로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미쉬나 모에드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모에드가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미쉬나 모에드의 텍스트의 내용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12개 마섹콧에 대해, 첫째, 안식일 및 절기에 관한 내용으로, 샤밧(안식일), 페사임(유월절), 요마(속죄절), 숙카(초막절), 로쉬 하샤나(신년), 메길라(두루마리),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에루빈(제휴), 쉐칼림(세겔), 베이짜(달걀), 타아닛(금식), 모에드 카탄(소절기), 하기가(축제)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모에드를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절기에 대한 교회력을 교회력의 기원, 교회력의 내용, 교회력의 성서일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모에드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모형으로, 절기교육의 목표, 절기교육의 내용, 절기교육의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는 절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교 절기의 역사적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그리스도교 성서 일과에 따라 다양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교 절기가 상징하는 수많은 상징들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난을 당하는 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절기들을 축제로 지켜져야 한다.

《 주제어 》
미쉬나, 모에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대속죄절, 신년

□ 2023년 8월 22일 접수, 2023년 9월 27일 심사완료, 2023년 9월 28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okch1@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최근 2023년 5월부터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태도와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문제 등의 문제로 한국 교회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국민들이 거의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최저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였으며,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개신교인 자체도 37.0%가 불신하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에는 11%가 더 하락하였다는 조사 결과이다(정재영, 2023, 13).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 동안 한국 교회의 대면 예배가 관련 이슈로 불거졌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지 간에 이기적인 집단의 이미지가 자리잡혔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 교회의 신앙관과 교회관을 바로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정재영, 2023, 54-58).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되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존재와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거듭남으로 사회적인 비난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와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정의, 평화, 사랑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와 기독교교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야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회 변혁운동에 참여할 성숙한 신앙인을 양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윤응진, 2000, 26). 연구자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교육을 잘 지켜왔으며, 지금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러한 신앙교육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유대교 경전인 미쉬나와 탈무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본다. 이제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유대교 경전 미쉬나 모에드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쉬나의 6권의 책중에서 2번째 책인 모에드를 분석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II. 미쉬나 모에드의 기원과 텍스트의 분석

1. 미쉬나 모에드의 기원

미쉬나는 유대교 경전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개의 토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정통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배철현, 2012, 6). 두 개의 토라는 성문 토라(Written Torah)와 구전 토라(Oral Torah)이며, 성문 토라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십계명(혹은 모세오경)이고, 구전 토라가 미쉬나(Mishaha)이다. 미쉬나는 현인들의 독특한 유대교를 명확히 표현했고, 법적인 실천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했으며, 학교와 법정에서 가르침과 논쟁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랍비들은 미쉬나의 모순과 포함되지 않았던 가르침에 대한 보고와 규정들을 구약성경과 서로 관련지으면서, 명확하게 하려고 했다(Solomon, 2022, 22). 이 미쉬나에 아모라임들이 논의한 토론의 기록인 게마라(Gemara)를 포함시키면 탈무드가 된다. 그러므로 미쉬나는 바벨론 탈무드(Talmud Babli)와 팔레스타인 탈무드(Talmud Yerrushalmi)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쉬나의 어원은 히브리어 동사 샤나(shana)에서 나왔으며, '반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Neusner, 1984, 28). 그러므로 미쉬나는 '반복하여(외워서)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두로 전승된 율법들로, '타나임'학자들이 편집하여 500년에 걸쳐 형성되었고, 그 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구전율법의 총화이다(Neusner, 1973, 4). '타나임'학자들은 현인들로서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약 서기 220년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Solomon, 2022, 34). 유대인들은 미쉬나가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규범(율법)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암기함으로 일상생활에서 그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 미쉬나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기에 암담한 현실과 강력한 이교도의 관습에 물들기 쉬운 위기의 상황에서 토라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기의 에스라 시대에는 토라가 유대민족에게 근본적인 율법으로 일상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고 통제하였다(Musaph-Andriesse, 1981, 21; 옥장흠, 2012, 64-65).

미쉬나가 편집된 시기는 서기 1-2세기에 편집이 시작되었고, 서기 3세기 초 팔레스타인 갈릴리에서 랍비 유다 하-나시(Judah ha-Nasi)가 완성하였다(Solomon, 2022, 20). 편집의 과정은 유대인들이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서기 54-68년)에 우상숭배 강요와 폭정에 항

거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여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제2성전)을 파괴시키고, 반란군은 처형시키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20-30명의 랍비들만 생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랍비 예후다 하-나씨(Judah Ha-Nasi)가 구전 율법을 한곳에 모으는 작업에 착수하여 서기 200년경에 미쉬나를 책으로 완성하게 되었다(조철수, 2002, 31; 최창모, 1994, 228; 최중화, 2019, 133-134).

따라서 유대인들의 경전은 구약성서(Tanakh), 미쉬나와 탈무드가 있다. 구약성서는 성문 토라로 성문 율법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미쉬나는 구전 토라로서 구전 전승되어온 구전 율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쉬나는 농사와 관련된 법으로 제라임, 안식일을 비롯하여 절기와 관련한 법으로 모에드, 혼인, 이혼, 재혼, 상속 등의 결혼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으로 나쉼, 손해와 관련된 민·형사와 관련한 법으로 네지킨, 성전 제사와 제의와 관련한 법으로 코다쉼, 정결과 관련한 정결법으로 토호롯 등 총 6권 63부로 구성되어 있다.

모에드(Moed)는 유대교 경전 미쉬나의 두 번째 책(세데르)으로, 절기 혹은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약성서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교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칠칠절은 모에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농사와 관련이 깊은 이유로 미쉬나의 첫 번째 책인 제라임(Zeraim) 비쿠림(Bikkurim)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하누카(Hanuka)는 아마도 유다 하-나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을 시기에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기념하는 절기의 소책자를 출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Solomon, 2022, 152). 모에드 텍스트는 12개의 소책자(마세켓)로 구성되어 있다(김성언, 2019, 125-126 참고). 첫째, 샤밧(안식일), 둘째, 에루빈, 셋째, 페사임(유월절), 넷째, 쉬칼림(쉐켈), 다섯째, 요마(대속죄절), 여섯째, 쑤카(초막), 일곱째, 베짜(달걀), 여덟째, 로쉬 하샤나(신년), 아홉째, 타아닛(금식), 열째, 메길라(두루마리), 열한 번째, 메에드 카탄(소절기), 열두 번째, 하기가(축제)이다.

2. 미쉬나 모에드의 텍스트 분석

연구자의 관점에서 미쉬나 모에드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안식일 및 절기에 관한 내용으로, 샤밧(안식일), 페사임(유월절), 요마(속죄절), 숙카(초막절), 로쉬 하샤나(신년), 메길라(두루마리), 둘째,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에루빈(제휴), 쉐칼림(세켈), 베이짜(달걀), 타아닛(금식), 모에드 카탄(소절기), 하기가(축제) 등으로 분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식일 및 유대교 절기

(1) 샤밧(Shabbat, 안식일)

미쉬나 샤밧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성서 창세기 2장 2-3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안식일에 금지하는 노동(일) 3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사와 관련한 노동(9개)으로, 씨뿌리기, 밭갈기, 추수, 곡식 단 묶기, 타작, 키질, 선별하기, 마분, 체질하기 등이다. 둘째, 음식과 관련된 노동(5개)으로, 반죽, 빵 굽는 일, 사냥, 도살하기, 소금에 절이기 등이다. 셋째, 의복과 관련된 노동(13개)으로, 양털깍기, 표백하기, 빗질하기, 염색하기, 실짜기, 실걸기, 엮기, 두 개의 실 엮기, 두 개의 실 분리하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바느질, 박음질을 위해 찢기 등이다. 넷째, 가죽과 관련된 노동(6개)으로, 가죽벗기기, 가죽말리기, 매끄럽게 만들기, 재단하기, 글자 쓰기, 글자 지우기 등이 있다. 다섯째, 공사와 관련된 노동(3개)으로, 집 건축, 집 허물기, 망치질 하기 등이다. 여섯째, 불의 사용과 관련된 노동(3개)으로, 불붙이기, 불끄기, 불을 이동하는 것 등이다(Neusner, 1988, 179-207; Shabbat, 2023).

(2) 페사힘(Pesahim, 유월절)

미쉬나 페사힘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성서 출애굽기 12장 1-12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월절을 위한 준비로서, 누룩의 제거, 발효된 것의 제거와 취소하는 것, 니산(Nisan)월 14일(유월절 당일)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둘째, 유월절 제물(헌물)로 도살하는 것과 먹는 것으로, 유월절 제물로써 지정된 양을 도살하는 것에 대한 규칙, 안식일의 특별한 문제, 유월절 제물을 굽는 것과 먹는 것, 불결과 유월절 제물, 유월절 제물에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것, 가족과 다른 집단에서 제물을 먹는 것, 불결한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유월절의 잃어버린 유월절을 위해 지정된 동물 혹은 대용물로써 지정하는 동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셋째, 유월절 밤 축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eusner, 1988, 229-250; Pesahim, 2023).

(3) 요마(Yoma: 속죄절)

미쉬나 요마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죄절에 대한 규정으로 구약성서 레위기 16장 1-34절, 민수기 29장 7-11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죄의 날의 성전의식으로, 속죄의 날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것, 제단의 제들을 깨끗게 하는 것, 속죄의 날 일생 전체의 제물, 속죄의 날 대제사장의 개인적 제물, 속죄의 날 두 마리의 염소와 다른 제물, 희생염소와 그 규칙, 속죄 의식은 토라를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등으로 마친다. 둘째, 속죄의 날의 율법으로, 먹지 않은 것, 마시지 않는 것, 회개와 속죄를

한다(Neusner, 1988, 265-278; Yoma, 2023).

(4) 수카(Sukkah): 초막

미쉬나 수카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막절에 대한 규정으로 구약성서 레위기 23장 33-34절, 민수기 29장 12-35절, 신명기 16장 13-35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콧축제에 부속물로, 수카와 지붕, 수카 안에 거주해야 할 의무, 루랩과 에트로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둘째, 축제의 의식들과 제물들로, 축제의 날에 수행되는 축제의식들, 제물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eusner, 1988, 279-290; Sukkah, 2023).

(5)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 신년

미쉬나 로쉬 하샤나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년 규례에 대한 규정으로 구약성서 출애굽기 12장 1-2절, 23장 16절, 레위기 23장 23-25절, 민수기 29장 12-38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월의 지정으로 네 개의 새로운 해들, 새로운 달의 출현에 관한 증언을 받는 것과 새로운 월을 발표하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둘째, 소파(양의 뿔)를 부는 것, 양각 나팔을 부는 것으로, 소파에 관한 율법, 신년 예배 의식, 예배 의식에서 소파를 부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eusner, 1988, 299-308; Rosh haShanah, 2023).

(6) 메길라(Megillah, 두루마리)

미쉬나 메길라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림절의 성서 낭독에 대한 규정으로 구약성서 에스라 9장 17-32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더의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회당 자산과 예배 의식에 관한 율법으로, 회당 자산들의 배치, 회당예배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의 규칙, 낭독되는 성구 등에 대한 설명이다(Neusner, 1988, 316-323; Megillah, 2023).

2)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규정

(1) 에루빈(Erubin, 제휴)

미쉬나 에루빈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식일 규정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허락해 주는 규정으로, 거주지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일과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하는 장소와 먹는 행동에 대한 것으로

출애굽기 16장 29절-30절의 설명이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율법(토라)은 안식이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거주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이동 거리가 정해진다. 거주 장소로부터 2000규빗(약 1Km)의 거리까지는 이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거주 장소의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물건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지만, 사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둘째, 안식일에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셋째, 공적으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Neusner, 1988, 208-228; Erubin, 2023).

(2) 쉬칼림(Sheqalim, 세겔)

미쉬나 쉬칼림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전세(반세겔, 출애굽기 30:16, 열왕기하 12:5-7)에 대한 규정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성전세로 반세겔을 바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쉬칼림은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게마라(게마라)가 있지만, 바벨론 탈무드는 게마라가 없다. 이 쉬칼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쉬칼림을 언제 어떻게 거두는 지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쉬칼림을 속전의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제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성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출애굽기 25:1-7; 29:26-28; 30:11-15)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Neusner, 1988, 251-264; Sheqalim, 2023).

(3) 베이짜(Betzah, 달걀)

미쉬나 베이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기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축제의 날에 음식 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구약성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사례와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축제의 날을 위해 축제 전에 음식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셋째, 일상적인 날과 축제날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 넷째, 안식일의 한계에 관하여 소유물들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이다(Neusner, 1988, 291-297; Betzah, 2023).

(4) 타나이트(Taanith, 금식)

미쉬나 타나이트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식에 대한 규정으로, 구약성서 민수기 10장 9절, 열왕기상 5장 35-39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소집되는 금식으로, 비를 위한 금식, 금식하는 날을 위한 공동체의 예배의식, 공적 금식들에 대한 다른 규칙, 경고로서 소파의 이용 등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제의식에 이스라엘의 참여로, 대표단(마하바드), 공적 재난을 위한 슬픔의 날 등에 대한

설명이다(Neusner, 1988, 291-298; Taanith, 2023).

(5) 모에트 카탄(Moed Qatan, 소절기)

미쉬나 모에드 카탄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의 규정으로, 구약성서 출애굽기 12장 16절, 레위기 23장 7-8절과 37절, 민수기 28장 18절과 25절, 29장 12-35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월절과 초막절 축제(매우 거룩한 날 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에 중간에 낀 날들 동안에 행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농업과 상업에 대한 언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셋째, 축제의 날에 죽은 자의 매장을 포함하는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eusner, 1988, 324-327; Moed Qatan, 2023).

(6) 하기가(Hagigah, 절기 제사)

미쉬나 하기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대교 3대절기와 성전 예배 규정으로 구약성서 출애굽기 23장 14-18절, 34장 23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몸을 나타내는 제물, 축제의 제물, 그리고 기쁨의 화목제물로서 책임과 비용, 축제의 제물과 안식일 등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보통 사람들과 '거룩한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제의적 불결함의 규칙으로, 이 규칙들의 엄격함, 거룩한 것들과 축제 등에 대한 설명이다(Neusner, 1988, 328-336; Hagigah, 2023).

Ⅲ. 미쉬나 모에드의 교육신학적 고찰

유대교 미쉬나 모에드의 기독교교육적 적용을 위해 교육신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절기에 대한 교회력을 첫째, 교회력의 기원, 둘째, 교회력의 내용, 셋째, 교회력의 성서일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력(The Church' Year)의 기원

교회력은 그리스도교의 절기로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력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03, 592-594). 첫째, 초대교회의 교회력은 유대교의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신년, 속죄절 등의 유대교의 절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

기였으며, 그 이후의 절기는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Pentecost)이었으며, 점차 주현절, 성탄절, 사순절, 예수 승천일 등을 교회력에 포함시켜 나갔다. 둘째,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제외한 절기를 교회력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이후 현재까지 지켜온 교회력은 '그리스도론적 교회력'으로 1년을 주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여, 대림절(대강절)에서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까지를 축제 기간으로, 성령강림절 이후 대림절까지를 비축제 기간으로 분류하였다.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6개의 절기로 구분된다. 그 절기는 첫 번째 절기로 대림절이 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탄생을 준비하는 4주 기간이다. 두 번째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이다. 성탄절은 성탄 전야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절기로 주현절이 있다. 이 절기는 1월 6일 주현일을 기준으로 하여 7주간이다. 네 번째 절기로 사순절이 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활주일 전 6주간의 기간이다. 다섯 번째 절기로 부활절이 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부활절로 부활 후 7주가 있다, 여섯 번째 오순절(성령강림절)이 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7주 후에 오는 절기이다. 오순절은 성령강림 후 26주로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주일이고, 오순절을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의 교회력이 마감된다. 셋째, 다른 전통의 새로운 교회력으로 '삼위일체력'이 있다. 삼위일체 교회력은 1년을 기준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적 사역에 맞춰 구분하는 절기로, '그리스도론적 교회력'에서 결여된 성부 하나님의 절기를 추가하고 있다. 이 교회력은 스코트랜드 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며(1956), 카나다 연합교회의 수렴(1969)을 거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수용하여 지키고 있다(1978). 또한 이 교회력은 세계교회협의회의 JPIC(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 신학과 맥을 같이 하는 교회력이라 할 수 있다. 이 교회력의 특징은 9월부터 시작된다. 9월부터 3개월 동안을 성부 하나님의 절기(창조절)로 설정하여, 하나님의 창조 과업, 인류 구원사역, 창조 세계에 대한 섭리와 사랑 등이 창조절의 주제로 보충하였다. 이 교회력은 사도신조의 내용이 교회력으로 재해석되고 선포된다. 첫 번째 창조절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두 번째 주현절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 성탄절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네 번째, 사순절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다섯 번째, 고난주간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여섯 번째, 부활절로,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일곱 번째, 승천일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덟째, 대림절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홉째, 성령강림절로, "성령을 믿사오며"로 구성되어 있다.

2. 교회력의 내용

현재 사용하는 교회력은 '그리스도론적 교회력'과 '삼위일체력'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삼위일체력'을 중심으로 교회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창조절(Creation Season, 녹색)

창조절은 한국기독교장로회(9월 첫 주일)와 기독교대한감리회(8월 마지막 주일)가 왕국절로 지키는 절기이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 재림과 심판, 하나님 나라를 기원하는 기간으로 추수감사절을 포함하고 있다(이정훈, 2000, 88). 창조절은 '삼위일체력'의 교회력으로 사도신조의 내용을 근거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적 활동을 담고 있는 삼위일체력에서 성부 하나님께 속한 절기이다. 특히,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을 주제로 하는 절기로, JPIC(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 신학과 이 세계와 환경의 문제가 신학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03, 595). 따라서 오늘날 생태 환경의 위기 상황에서 온 세상의 피조물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생태학적 신학"의 측면에서 창조절을 올바로 이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회복시키기 위해 '창조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김윤규, 2019, 43-44).

2) 대림절(Advent Season, 보라색)

'그리스도론적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절기는 4주 동안이며, 11월 30일(성 안드레의 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작된다.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다는 뜻으로, 첫째, 과거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의 형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적 측면에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는다는 점이다. 셋째, 미래의 측면에서 세상의 끝날에 재림 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기도, 인내로서 이 절기를 맞이해야 한다(정장복, 1986, 241-242).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에는 대림절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영접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대림절에서부터 주현절까지의 기간은 성육신의 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한다(Duck, 2021, 265).

3) 성탄절(Christmas Season, 흰색)

12월 25일은 로마시대 이교도들의 태양신 축제일을 336년경에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늦가을 혹은 겨울이었다는 역사적 고증에 따라, 이 시기가 태양이 지평선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 올라와 우주에 빛을 주는 날이라는 의미로 당시의 동지날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택을 하였고, 12월 25일부터 1월 6일(주현절)까지 기간을 성탄절로 지켰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596; 정장복, 1986, 244). 성탄절이 차츰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성탄의 첫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의 “청빈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정장복, 1986, 244-245).

4) 주현절(현현철, Epiphany, Theophany, 흰색/녹색)

주현절은 동방 교회의 성탄절로서, 5세기부터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켰다. 이 날은 이집트의 신인 오리시스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지켜져온 전통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화육절의 의미로 지켰으며, 1월 6일부터 시작하여 성회 수요일 전날까지 계속된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596). 이 주현절은 빛의 절기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 가는 길과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퍼뜨리는 것이다(정장복, 1986, 247-248).

5) 사순절 (Lent, 보라색)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하는 기간으로서, 니케아 회의(325)에서 40일 동안으로 확정되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날은 성회 수요일(Ash Wednesday)로 지킨다. 성회란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에 소금을 섞어 만든 물을 뜻한다. 이 물을 예배자들의 머리에 뿌리는 회개와 정결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준비를 한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역순으로 주일을 뺀 40일간이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597).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동안 지켜야 할 규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소영, 2016, 196-197).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체험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절기로,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는가, 또 자라고 있는 가 살피며,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절기이다. 셋째, 결단과 전도의 절기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또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짐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넷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로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6) 고난 주간(Passion Week, 보라색)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간으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4세기 중엽부터 거룩한 주간(Holy Week), 또는 고난 주간으로 지켜왔다. 고난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월요일,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화요일,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수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베푸신 목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무덤 속에 갇혀 계신 토요일까지 이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금식, 철야기도, 고행 등을 수행해온 전통이 있으며, 흔히 세족식과 성만찬 예배를 수행한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597). 고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고, 예배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렬하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 처형에 해당되는 복음서 이야기를 읽는데, 여러 명의 낭독자가 드라마처럼 읽는다. 성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고 치욕을 나누며 십자가를 생각한다(Duck, 2021, 261-262).

7) 부활절(Easter Season, 흰색)

부활절은 히브리 민족의 유월절을 의미하는 파스카(Pascha)에서 유래하였고,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유월절과 부활절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유월절은 히브인들이 노예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이지만, 부활절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이다. 또한 부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일곱 주간으로 50일간이다. 부활주일은 봄이 시작되는 춘분을 지난 후 만월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로,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하였다. 따라서 매년 부활주일에 따라 사순절과 승천일과 성령강림절의 시기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은 승천일이고,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성령강림절)이 된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598).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가 주는 새 생명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새 생명을 가져오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는 시간이다(Duck, 2021, 262-263).

8) 승천일(Ascension, 흰색)

승천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로, 사도행전 1장 1-11절에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강림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598).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터틀리안(Tertullian)은 그리스도가 오순절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주장하였다. 또 4세기 전반에 유세비우스(Eusebius)는 오순절의 존엄과 거룩함에 대해 주장했는데, 오순절은 7주간 계속되었으며, 구세주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4세기까지 성령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동시에 기념하다가 4세기 말에 이르러 나누어 기념하게 되었다. 사도들의 규약(Apostolic Constitutuions)은 그리스도의 부활후 40일을 승천한 날로 기록하고 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40일이란 말에서 승천일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승천일(Ascension)과 오순절(Day of Pentecost)로 나누어졌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거룩한 교회에 함께 하게 되었다. 앞으로 성령은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다(White, 2000, 70-71).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땅에 교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Lochman, 1993, 95). 우리의 삶은 교회가 승천 축제와 관련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은 분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며, 보호받고 지속되는 것이다. 아주 무력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자 할 때, 그가 우리를 말씀과 행동(때로는 고난) 속으로 파송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여정은 방향과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Lochman, 1993, 103).

9) 성령강림절(Pentecost, 붉은 색)

성령강림절은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른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맥추절(출애굽기 23장 16절)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서 50 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였다. 신약시대에는 이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사도행전 2장).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김소영, 2016, 201), 그리스도교의 성령강림절은 유대교의 오순절과 유래가 같다. 오순절이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율법 선포일이며 건국기념일로 지킨다. 성령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598-599). 성령강림주일은 성령의 오심과 율법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은 세례, 견진(confirmation), 또는 위임(commissioning)을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선명한 색상의 여러 꽃들과 교인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언어, 불꽃과 바람 같은 상징들을 사용하여 기념할 수도 있으며,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선교를 위한 축제를 하

기 좋은 시간이다(Duck, 2021, 263).

3. 교회력의 성서일과

‘성서일과’(Lectionary)는 교회력에 맞추어 성경을 봉독하기 위해 선정된 성경 본문을 의미한다. Lectionaty는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위해 선정된 구약성경Lectio continua)에서 유래하였다. 초대교회에서는 유월절(Passa, Pascha), 오순절, 성탄절, 부활절, 순교자 기념일 등의 절기에 사용하도록 Lectionary를 만들었다. 16세기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서방교회의 모든 절기를 폐기하였고, 성탄절과 부활절만을 교회력으로 인정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 교회는 교회력과 성서일과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였고, 미국장로교회(1932년)와 스코틀랜드 교회(1940년)가 성서일과를 발행하였다. 1960년대의 제2바티칸공의회에서 발행한 교회력 및 성서일과와 합류되면서 세계 교회의 큰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600-601).

이러한 ‘성서일과’는 매년 각 주일이 지니는 절기에 따라 3년을 한 주기로 적절한 성서구절을 배열해 놓은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성서의 내용을 전체척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서일과는 강단설교와 교회교육의 기획에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성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박근원, 2000, 215-216). 성서일과의 구체적인 사례는 각 교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Ⅳ. 미쉬나 모에드의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

유대교 미쉬나 모에드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모형으로, 첫째, 절기교육의 목표, 둘째, 절기교육의 내용, 셋째, 절기교육의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절기교육의 목표

절기(feast)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신앙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진다(신명기 4장 9절; 6장 20-23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습

에 따라 올라갔다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약성서의 언약이고, 이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절기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절기는 유대교의 절기와 이를 계승한 초대교회의 절기들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절기인 교회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회력은 수많은 갈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수난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의와 평화,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교회력은 일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으로 예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점차 교회가 세속화 됨으로 인해 교회력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이정훈, 2000, 49-50). 그리스도교에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주일)로서 축제로 드려져야 한다. 즉 사순절의 약 46일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일은 축제로 드려져야 한다. 이 축제를 '하나 됨'의 축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중들은 친교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된다(이정훈, 2000, 54-55).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교 미쉬나 모에드에 나타난 절기와 그리스도교의 교육신학적 절기교육의 목적을 토대로 하여 절기교육을 위한 교육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교육을 위한 절기교육 목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의와 평화,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되돌아 보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2. 절기교육의 내용

유대교 미쉬나 모에드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절기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절기교육의 내용은 유대교 절기 중에서 미쉬나 모에드에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 유월절, 대속죄절, 초막절, 신년, 부림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창세기 2:1-3)을 표시하는 날로서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시까지이다. 이 날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며, 키두신(Kiddushin: 감사기도)이라는 기도를 드린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

게는 휴일이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일에는 일몰 15-20분 전에 반드시 2개 이상의 촛불을 각 가정에서 켜야 한다. 하나의 촛불은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며(출애굽기 20:8), 두 번째 촛불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신명기 5:12)이라고 할 수 있다(Kolatch, 2009, 188).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멀리 나갔던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또한 안식일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다(Syme, 2004, 9). 그러므로 유대인의 안식일을 주일로 변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2)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교의 봄 축제로서 30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들의 의식은 특별한 가정 예배(seder), 발효된 빵(chameitz)의 금지, 그리고 맛쨔(matzah)를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더(seder)의 뜻은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적인 의식으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지켜지는 음식을 말한다. 맛쟈(Matzah)는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 특별히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다. 유월절 아가다 (Haggadah)는 '말하는 것'이고 유월절 세더(Pesach seder)을 위한 기도문, 의식들, 성서 낭독부분, 그리고 노래들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책이다(Syme, 2004, 80-84).

유대교의 유월절은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에 해당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기이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대속죄절

대속죄일(Yom Kippur)은 '속죄의 날'이라는 의미로서, 단식, 기도 그리고 회개, 1년에 한 번 있는 유대교 의식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날을 유대교 달력에 있는 날 중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레위기 23장 27절), 기원후 70년 제2성전이 무너짐으로 동물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관습에 따라 모든 성인(12살 이상의 여자들과 모든 13살 이상의 남자)은 금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랍비들과 많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하얀 옷을 입는다. 하얀색은 순수의 상징이고, 죄를 씻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얀색은 유한의 상징으로서 보여지고 겸손과 회개에 대한 필요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날은 구약성경의 요나서를 읽는다(Syme, 2004, 20-26).

대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에는 없는 절기이다. 그러나 현대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신년에 되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을 화해하기 위해 5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화해와 용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요마 8:9).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년 동안 이웃과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신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 화해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4) 초막절

초막절(sukkot)의 의미는 '작은 공간', '오두막'이라는 의미로 풍부한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이고 시내산 이후의 유대인들의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축제로서, 대속죄일(Yom Kippur) 5일 후에 시작된다. 그 기원은 구약성경에는 레위기 23장 34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열왕기 상 8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Syme, 2004, 27-30 참고).

5) 신년

유대인들은 가을이 오면, 모든 세계 구석구석까지 특별한 10일의 기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데 그 절기는 경외의 날, 고귀한 날로서, 자기 반성, 금식, 회개의 시간이다. 신년이란 글자의 뜻은 "그 해의 머리"라는 의미이다. 성경의 근원은 레위기 23:24-25에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라고 가르쳐준다. 이 로쉬하샤나 휴일 하루전날, 축제 촛불의 축복과 키두쉬를 암송하고,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 음식을 먹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관례상 할라빵이나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다. 이 때 부는 나팔(shofar)는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16절; 20장 15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여호수아 6장 1절-20절은 세세하게 여리고의 정복의 부분으로서 나팔(shofar)를 불었다는 기록이 있다(Syme, 2004, 14-19).

신년 절기를 그리스도교에서는 신년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절기 행사를 마치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신년이 되면, 자기 성찰과 지난 한 해를 회개하면서 새해를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6) 부림절

부림절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작은 명절이다. 이 명절의 근원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에스더의 극적인 이야기는 부림절 저녁 회당 예배시간에 낭독되며, 그 다음 날 아침 예배에 반복된다. '부림(Purim)'이란 이름은 페르시아 아하수

에로 왕의 총리였던 하만이 온 나라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그 날짜를 정할 때에 제비뽑은 데서 유래되었다. 부림절 회당예배 때에는 '메길라(Megilla)'를 읽는데 중간에 '하만' 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마룻바닥에 발을 구르거나, 딱따기(grogger)로 소리를 내어 그를 야유한다. 부림절이 끝나기 전에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부림절 축하연(Purim Seuda)도 연다(Kolatch, 2009, 310). 부림절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행사이다.

3. 절기 교육의 방법

유대교 미쉬나 모에드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이야기를 통한 교육방법, 암송을 통한 교육방법, 창의력을 개발을 위한 교육방법, 상징을 통한 교육방법, 참여와 의식을 통한 교육방법, 하브루타 교육방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이야기를 통한 교육방법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출생한 이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초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출애굽기 10:2, 12:26-27)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삼손 이야기 등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이 이야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민족정신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한 교육방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고, 유대인 정신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인지적인 발달과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준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유대인의 정체성은 물론 유대인으로서 소속감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게 된다(옥장흠 2011, 180). 이러한 이야기를 통한 교육방법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성서 이야기들은 인간의 삶의 스타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스타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 목표들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며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박종석, 1996, 85-86). 또한 학습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변환시킴으로 신앙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양금희, 2010, 206).

2) 암송을 통한 교육방법

유대인 부모는 어린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토라를 가르쳐서 쉐마를 읽도록 하고 암송시키고 외우도록 한다. 유대인들은 교사 외에는 책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은 언어

를 통하여 행해지고, 학생들은 반복하여 암송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대인의 암송법은 읽으면서 보고 느끼고 외우는 감각적 요소와 말하고 쓰는 동작적인 요소, 들으면서 외우는 청각적인 요소와 노래하면서 외우는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반복과 암송교육은 유대인의 생활양식에 배어있다. 유월절에는 식후에 기도, 안식일에 기도, 쉐마교육 등으로 반복, 기억, 연상, 상징을 한다. 유대인들은 반복 암송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손목과 미간에 기호나 표를 붙여 쉐마의 내용을 기억하도록 가르쳤다. 이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토라를 가르치고 쉐마를 암송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외우게 하는 교육방법으로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발음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암기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암송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이 완성되는 교육을 수행하였다(옥장흠 2011, 180-181). 이러한 암기를 통한 교육방법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에서와 같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성서의 말씀을 보고, 암기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전인적 인격이 형성하도록 한다.

3)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방법

창의력(Creativity)이란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나 그러한 아이디어의 복합체를 생산해 주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교육방법을 유대인들은 탈무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쉬나의 텍스트 하나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다른 주제로 끊임없이 확장, 재확장을 거듭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해나가면서 해석을 하고 있다(옥장흠 2011, 168).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성서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창의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창의성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21세기 사회와 한국 교회에 필요로 하는 창의력이 풍부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

4) 상징을 통한 교육방법

유대인들은 아이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삶의 과정에서 많은 상징들을 포함하는 교육을 한다. 먼저 아이가 출생하면, 나무를 심고, 회당에 가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생후 8일이 되면 할례의식을 갖는다. 남자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삶의 언약이기 때문이다(창세기 17:1). 또한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 대속예식을 한다(민수기 18:15-16). 또한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성년식은 가족과 친지

들이 모두 함께 모여 축하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년이 되는 아이는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충성의 서약을 한다. 유대인들은 삶의 과정에서 상징하는 것들에는 테필린(Tefillin), 필락테리아(Phylacteries), 메주자(Mezuzah) 등이 있다. 테필린은 옷자락에 청색 끈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하나의 언약이다. 메주자는 모든 문에 붙여두는 것으로, 문을 드나들면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것으로 나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도 다양한 상징들이 있다. 상징은 십자가, 일곱 촛대, 성경, 교회 종탑, 예수 그리스도, 성만찬 등이 있다. 그리스도교도 유대인들처럼 각 절기마다 수많은 상징들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옥장흠, 2014, 141-142). 특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성서를 낭독하고, 절기에 따라 상징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절기를 축제로 지키는 예배 의식들을 통해서 절기의 상징적 의미들을 되살리는 교육을 해야 한다.

5) 참여와 의식을 통한 교육방법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서 시작하여 모든 종교적 의식에 어린이들을 참여시켜 신앙교육을 하였다. 집안의 청소를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안식일에 온 가족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누룩 넣은 빵과 과자를 제거한다. 초막절에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 초막을 세우고, 상징이 되는 열매와 식물들로 초막을 장식하고, 초막에서 식사도 하고,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통해, 광야의 생활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마다 상징하는 바를 자녀들에게 의식에 참여시키면서 가르친다. 그 외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체험하는 활동들이 있다. 조상들의 유목생활의 경험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과 그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였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유대인 조상들의 역사와 상징하는 의미들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학습하게 된다(옥장흠 2011, 172).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에서도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교 절기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함으로서 신앙이 성숙된다. 다양한 종교의식과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참여함으로써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6) 하브루타 교육방법

하브루타(havruta) 교육방법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경전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 학습방법이다. 하브루타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어원 '하베르(haver)에서 유래되었고, 이 단어의 의미는 '친구', '짝'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김난예, 2015, 174). 하브루타는 2명이 서로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황병준·김지

숙, 2018, 213-214). 하브루타 교육방법은 2명의 학습자가 서로 질문과 대답을 통한 토론을 하면서 텍스트의 맥락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다(Kent, 2010, 219). 하브루타 교육을 위한 6가지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청하기(listening)와 재확인하기(articulating)이다. 먼저 경청하기는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듣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재확인하기는 본인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둘째, 반문하기(wondering)와 집중하기(focusing)이다. 반문하기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습파트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 제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심화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집중하기는 텍스트, 자신의 생각, 학습파트너의 주장에 주의를 집중하고, 창의적인 관점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셋째, 지지하기(supporting)와 도전하기(challenging)이다. 지지하기는 학습파트너와의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질문에 대한 학습파트너의 주장을 지지, 격려,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도전하기는 학습파트너에게 직접적인 도전이 아니라 파트너의 생각에 건설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의견에 모순적인 오류나 한계점, 텍스트와의 대립하는 부분 등이 있는지 탐색하는 단계이다(박진경, 2020; 정선영, 2013, 109).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소개된 하브루타 교육이 만능교육처럼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러한 유대인의 교육방법인 하브루타를 기독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모델들을 개발해야 한다.

Ⅴ. 나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경전 미쉬나 모에드(Moed)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기독교교육에 실제로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미쉬나 모에드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모에드가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미쉬나 모에드의 텍스트의 내용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12개 마섹콧을 안식일 및 절기에 관한 내용으로, 샤밧(안식일), 페사임(유월절), 요마(속죄절), 숙카(초막절), 로쉬 하샤나(신년), 메길라(두루마리),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에루빈(제휴), 쉐칼림(세겔), 베이짜(달걀), 타아닛(금식), 모에드 카탄(소절기), 하기가(축제)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모에드를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절기에 대한 교회력을 교회력의 기원, 교회력의 내용, 교회력의 성서일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모에드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모형으로, 절기교육의 목표, 절기교육의 내용, 절기교육의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는 절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교 절기의 역사적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그리스도교 성서 일과에 따라 다양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교 절기가 상징하는 수많은 상징들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난을 당하는 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절기들을 축제로 지켜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난예 (2015). 질문생성 전략과 하브루타 신앙공동체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3**, 169-198.

[Kim, N. Y. (2015). Question Generation Strategy and Havruta Faith Community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3, 169-198.]

김성언 (2019), "미쉬나 제2권 '모에드': 이것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기독교 사상, 723**. 125-136.

[Kim, S. J. E. (2019). Introduction of Mishnah: This… These are the feasts of the LORD, which you shall proclaim as solemn convocations". *Christian idea*, 723, 125-136.]

김소영 (2016), **현대예배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Kim, S. Y. (2016). *Introduction to Modern Worship Studies,*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김윤규 (2019). 창조절 주간의 필요성과 그 예배의 실제: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85**, 17-49.

[Kim Y. G. (2019). The Need of the Weeks of Creation and its Practice of Worship: Centered on the PROK(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Sinhagsasang* 185. 17-49.]

박근원 (2000),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ark, G. W. (2000). *Today's Worship*, Seoul: Korean Christian Society.

박진경 (2020). 기독교 대학 종교교육에서의 하브루타 적용 연구: 관계적 접근, **신학과 실천, 71**, 529-552.

[Park, J. K. (2020),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Havruta in Religious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y: A Relational Approach, *Theology and Praxis*, 71, 529-552.]

박종석 (1996).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 77-96.

[Park, J. S. (1996). St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 77-96.]

배철현 (2012). 호로즈: 미쉬나 경전해석의 원칙. **종교학연구, 30,** 1-17.

[Bae, C. H. (2012). Horoz: The Principle of Mishnaic Interpretation. *A Journal of Regious Studies, 30*, 1-17.]

옥장흠 (2011), **통전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탈무드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Ok, J. H. (2011). *A Study on The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According to the Faith Education in the Talmu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onghoe University.]

이정훈 (2000), **한국의 그리스도안을 위한 절기예배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Lee, J. H. (2000), *The Story of Seasonal Worship for Christians in Korea*, Seoul: Korean Christian Society.]

윤응진 (2000). **비판적 기독교교육론**. 서울: 다신글방.

[Yoon, E. J. (2000). *Critical Christian Education*, Seoul: Dasingeulbang.]

양금희 (2010). 이야기의 기독교교육적 차원, **기독교교육논총, 23**, 181-211.

[Yang, K. H. (2010). A Study about Story and its Religious educational Dimens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3, 181-211.]

정선영 (2013). **국가수준 교육과정-국제 이스라엘 비교연구 Ⅱ**. 서울: 교육부.

[Jung, S. Y. (2013). *National level curriculum: International Israel Comparative Study II* Seoul: Ministry of Education.]

정장복 (1985),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Jung, J. B. (1985), *Introduction to Worship*, Seoul: Jong Book.